

광주문화재단, 협업·개방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이어간다

독서 공간·전시장 등 개방 확대 문화누리카드, 문화향유 지속 5개 구 협력 문화사각지대 해소 33억여 원 규모 예술창작활동 아트광주25 연계 파빌리온 추진

지난 2011년 '문화의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이 13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협업과 개방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를 일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광주문화재단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과 더 가까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은 전시장과 미팅룸으로 리모델링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책 읽는 인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을 '글빛마루정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의 첫 출발점이 될 광주공원 앞 광장에서 시민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디제잉, 힙합, 스트리트댄스 등 다양한 대중문화 예술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청춘문화누리터'는 올해도 청춘문화기획단과 함께 청춘문화광장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향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9만7000여명에게 연간 14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예술 관람, 국내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13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내 5개 자치구 협조로 △문화예술상품 거래처 발굴 △문화장터 '누리랑개' 운영 △카드 이용률 제고 결재 이벤트 등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새롭게 추진한다. 5개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다중이용 장소에서 야외공연 50팀이 매주 토요일 시민을 만난다. 목요일상설공연과 토요일상설공연은 더 다양한 레퍼토리와 장르를 무대에 올린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목요일상설공연은 해설이 있는 클래식 공연 이외에 새로운 장르로 프로그램을 넓힐 계획이다.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은 전통 가무악극과 체험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예술상품 유통 활성화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아트페어는 문화예술유통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미술관들과 협업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한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아트광주25'와 함께 '아트광주 파빌리온'을 추

진해 새로운 예술상품 유통 인프라 구축을 시도한다.

광주의 문화예술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더어마이광주'도 예술인들의 작품과 활동 홍보를 강화한다. '아트콜라보'와 '아트스토어' 활성화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시 마켓 및 팝업스토어 '더어마이워크'를 연계 추진해 시민들이 함께 광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거버넌스를 활용한 정책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발족한 '문화예술 정책거버넌스'는 올해 미래 문화도시 광주를 위한 중요제제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AI활용 예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책사업 공동기획, 광주시 정책제안 등 거버넌스 활동의 실행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정부·의회·중앙기관 참여 모델을 마련한다.

아시아철학·신화컬러콘텐츠 개발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광주전남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철학·민속자료 전수조사를 끝마쳤다.

올해는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철학·신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학술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향후 공연 무대에 오를 작품의 시나리오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이라

는 비전에 맞춰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전국 1위(93.4%) 달성 과 기관 경영평가 A등급의 성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공모 선정을 끝내고 이달부터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예산도 33억5000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3억9000만원이 증액됐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는 국내의 정세나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다"며 "많은 기관·기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 을사년 푸른 뱀의 지혜로움과 유연함을 본받아 '문화예술의 힘'이 발휘되도록 임직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신년 소감을 전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자연서 얻은 영감을 과학기술로 활용하다

국립광주과학관, 자연모사 특별전 '모방하는 인간, 호모 미메티쿠스' 본관 2층 상설전시관 3월3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은 14일부터 3월3일까지 본관 2층 상설전시관에서 자연모사 소규모 특별전 '모방하는 인간, 호모 미메티쿠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 외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시 협조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우리 삶 속에 활용한 사례와 다양한 자연모사 연구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천어의 유선형 구조를 모사해 고속주행 효율을 높인 KTX 산천을 87분의 1 축소 비율의 작동모형으로 제작해 선보인다. 또 자연모사 기술개발 연구자들의 인

터뷰 영상과 독사 어금니를 모방해 통증을 줄인 마이크로니들 주사, 장수풍뎅이 날개 원리를 본떠 충돌해도 추락하지 않는 비행로봇 등 다양한 연구사례들을 소개한다.

문기현 국립광주과학관 전시기획실 연구원은 "자연으로부터 유래된 자연모사기술(Nature-Inspired Technology)을 통해 자연 생태계의 기본 구조와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상하는 시간"이라며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https://www.sciecn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광주 주요 문화예술 기관장들 후속 인사 관심

ACC·광주비엔날레·시립미술관 등

광주의 주요 문화예술 기관장들의 임기가 이달 전후로 대부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새 기관장 선임에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지역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올해 새 기관장을 뽑는 문화예술기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ACC 재단,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예술의전당 등이다.

이 중 정부가 선임하는 ACC의 경우 국정 상황에 따라 후임 인선이 유동적이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과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등은 공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ACC는

이강현 현 전당장의 임기 3년이 다음달 13일 만료돼 새 전당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CC 초대 공모직 전당장인 이강현 전당장은 수년간 이어졌던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3년 전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임된 바 있다.

문체부는 ACC 전당장과 함께 ACC 재단 사장과 재단 이사장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 대표기관인 광주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도 새 기관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선임하는 ACC와 달리 광주시가 임명하는 자리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

지난해 31일 임기를 끝낸 박양우 대표이사의 후임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사장

으로 있는 이사회에서 뽑을 방침이다.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디자인비엔날레까지 맡아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와 조직 관리 능력에 중점을 둔 인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달 임기를 끝내는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의 후임도 관심이 크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일 광주시립미술관 신임 관장 공모 지원자 접수를 마감했다. 1차 서류 전형을 거쳐 1차 합격자를 14일 발표하고 오는 20일 2차(서류+면접) 적격성 심사 후 임용 후보자 2-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2월 중 채용된다.

이어 광주예술의전당도 오는 5월 운영 문 현 전당장의 임기 2년이 끝나 새 전당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박찬 기자

'사서를 만나는 시간 북큐레이션' 등 개최

내일부터 광주 문화의숲 도서관 필사·종이접기 등 프로그램 마련

광주 문화의숲 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사서를 만나는 시간 북큐레이션'과 '오늘의 종이접기'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서북큐레이션은 매일 다채로운 방식으로 열린다. 이달에는 출판사가 제공하는 책을 이용한 '필사하기 좋은 도서'가 진행된다. 다음달에는 '동기부여 200% 되는 도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설레는 봄, 설레는 북'을 주제로 열리고 오는 8월에는 '한강 플레

이 리스트', 10월에는 '알록달록 가을을 담은 시·에세이' 전이 펼쳐진다.

'오늘의 종이접기'는 이달 '뱀'을 시작으로 2월 '당근', 3월 '코끼리', 4월 '노란 버스', 5월 '주먹밥', 6월 'UFO 종이접기' 등으로 구성됐다.

종이접기 행사는 개인·가족 단위 참가가 가능하며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른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의숲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단순하게 책을 읽는 수준을 넘어 책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리드미컬한 선들의 역동적 구현... 켈리넨리 작가 초대전 '리듬'

내달 4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9m 길이 대형작 등 10여점

리드미컬한 선들의 역동성과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들이 현장을 가득 메운다.

켈리넨리 작가 초대전 '리듬(rhythm)'이 다음달 4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신안 출신 켈리넨리 작가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벽면을 한 가득 채운 9m 길이의 대형작품 등 총 10여점을 선보인다. 그는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서 파



켈리넨리 작 'rhythm'.

편화된 선으로 이어진 인간의 신체 형상을 통해 내면을 찾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감정구조를 교차시키는 이중적인 표현 방식으로 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작품에 투영했다.

14일 오후 2시에는 전시 현장에서 작가

의 드로잉 라이브 페인팅도 열려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금희 전남대 박물관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관람객들이 우리 삶과 내면의 리듬(rhythm)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